

로스쿨 발표 연기→잠정안 돌연 발표

조선대, 혼돈의 하루...

오전엔 실낱 희망, 오후 다시 위기속으로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기로 했던 지난달 31일 조선대학교는 그야말로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혼돈의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로스쿨 선정 결과 발표가 오후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가슴을 졸였고, 다시 이날 4일로 연기된다고 하자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오후 늦게 교육부가 조선대의 이름이 빠진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다.

김대환 조선대 부총장과 김춘환 법대 학장, 한길영 교수평의회 부의장 등은 이날 오전 일찍 상경. 교육부 차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조선대 구성원들이 전날 발표했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광주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춘환 학장은 일행이 광주로 내려간 뒤에도 서울에 남아 탈락 대학의 법대 학장들과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선대는 버스 10대를 동원해 청와대와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대학 교직원 단체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진호중 총장의 방침에 따라 계획을 철회했다. 법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부터 탈락에 대비, 법적 대응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김법철 법학과 학과장은 "어떤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며 "다른 탈락 대학들과의 연대 등 종합적인 검토는 대학본부와의 협의 하에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낮 교육부가는로스쿨 선정 결과 발표를 오는 4일로 전격 연기했다. 교수들 사이에서 "일단 탈락 확정만은 막았다"는 말이 오가며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조선대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오후 늦게 교육부가 조선대의 이름이 빠진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다.

김대환 조선대 부총장과 김춘환 법대 학장, 한길영 교수평의회 부의장 등은 이날 오전 일찍 상경. 교육부 차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조선대 구성원들이 전날 발표했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광주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춘환 학장은 일행이 광주로 내려간 뒤에도 서울에 남아 탈락 대학의 법대 학장들과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통 학교법인 조선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조선대 본관에서 열린 이사진 총사퇴 기자회견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 지방대학이 추가로 선정되더라도 어느 지역, 몇 개 대학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학 관계자들은 답답해했다. 한편 김용재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진들은 교육부의 발표 연기와 관계없이 배수의 진을 쳤다.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총사퇴'라는 극약 요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오래가지 못했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4시 넘어서 조선대 이름이 빠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때문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하루였다. 이상열 교수평의회 의장은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한 정성평가가 포함되는 등 당초 계획했던 로스쿨 설치 관련 규정들이 정치적 논리로 수습이 바뀌고 훼손된 것이 오늘 의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며 "광주 시민들이 다같이 경악하고 분노하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바뀔 수능 첫 세대·재수생 영어평가시험 준비

예비 중3 대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진을 계획 중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수위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과목이 기존 8개에서 5개로 축소되고, 2013학년도에는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분리된다. 영어는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 대입을 치르게 될 예비 중3 학생들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외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에서 2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재수를 선택한다면 외국어(영어) 영역이 수능 과목에서 빠지기 때문에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비해야 한다. 수능에서는 5지선다형 문제와 듣기 뿐이지만, '토익' 방식으로 알려진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수능 영어와 준비방식에서부터 차원이 다르다.

다만, 인수위가 2013학년도에서는 듣기와 읽기만을 평가영역에 넣고 2015학년도부터 4개 영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점이다.

올해 고1 학생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여서 숫자가 많은 점도 중3에겐 약재다. 대학들이 정원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수생의 숫자까지 포함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수는 61만7천962명이고, ▲고2 68만3천여명 ▲고1 70만1천여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예비 중3 68만9천여명 ▲중2 68만5천여명으로 다소 감소한다.

예비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도 (43)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절대 재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좋은 정책이더라도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원침 (7423)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목시스템, featuring a phone number and address.

여대생이 알바했다던 사무실 점도

○아르바이트했던 사무실에서 돈을 훔친 여대생이 경찰에 입건.

○지난달 3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21·남구 월산동)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박모(71·남구 봉선동)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여만원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든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던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박씨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둔 뒤 안부 인사를 하기 위해 들렀다가 서랍에 현금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탐이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남의 돈을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수능 모두 1등급 149명 서울대 불합격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고도 불합격한 학생이 149명에 이르렀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정시모집 일 반전형과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합격자 1천681명을 발표했으며 수능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지원자 289명 가운데 149명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모집단위의 탈락자 수는 사회대 광역 34명, 경영대 27명, 법대 28명, 의예과 42명 등이었으며 수능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고 합격한 지원자는 140명이었다.

서울대는 수능을 1단계 전형에서만 반영하는 이른바 '제로베이스' 방식의

영향도 있지만 대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모집단위의 1단계 전형 합격자의 수능 점수가 만점자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지역별 합격자는 서울이 37.6%, 광역시 25.5%, 시 32.2%, 군 4.6%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광역시가 약간 줄어든 반면 서울과 시·군 지역은 약간 늘어났다.

합격자의 논술 수능 평균은 인문계열에서 서울(19.99)이 광역시(19.60)나 시(19.85), 군(18.53)보다 약간 높았고 자연계열에서는 서울(22.39)이 광역시(21.5)와 시(21.96)보다는 높았지만 군(24.16)에 비해서는 낮았다. /연합뉴스

목포시의회 의장 기소

임대 규정 어겨...사퇴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임대 사용과 관련, 규정을 어긴 박병삼(49) 목포시의회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해 10월 목포시가 30억 원을 들여 신축한 갯바위 해양관광 단지 내 상가 건물 임대 과정에서 부인 명의로 낙찰을 받은 뒤 시 공무원 2명을 연대보증 세워 받은 대출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2개월 뒤 식당을 개업한 혐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의장 사퇴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목포=이성규기자 lsh@kwangju.co.kr

광주·전남 성인 6명 중 1명 "정신 장애 경험한 적 있다"

광주·전남지역 성인 6명 중 1명은 1년에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와 국립나주병원 등 12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18~64세 연령대의 1만2천849명을 상대로 '2006년도 정신질환실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발

인 결과 25개 정신질환종에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비율(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17.1%(남성 20.7%, 여성 13.5%)로 나타났다. 역학조사에는 광주·전남지역민 603명이 포함됐으며 오차범위(±2.0%) 내에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성인 6명중 1명은 2006년에 한번이라도 정신장애

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전국 인구비율로는 545만8천394명, 광주·전남에서는 57만6천403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 등 두 가지를 뺀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3%(남성 5.5%, 여성 11.2%)로 푹 떨어졌다. 이를 전국 인구로 환산하면, 2006년 한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인구는 264만930명, 광주·전남 27만9천774명에 달한다.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인구의 비율(평생 유병률)은 30%로, 남성(38.2%)이 여성(21.

7%)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 그러나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12.3%(남성 8.2%, 여성 16.5%)로 떨어졌다. /인현주기자 ahj@

Advertisement for 'Jenman Biotechnology' (젠맨비노기과) with contact information.

A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Incheon' (광주·인천) featuring a list of participating companies and a celebratory message for the New Year.